

### [고3] 15분 모의고사 Final 1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

#### 1.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1-', '-답2-'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 '-답1-'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2-'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 '-답1-'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2-'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 '-답1-'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2-'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  |         |
|---|---------|--|---------|
|   | -답1-    |  | -답2-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 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 보 기 >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정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정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방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혐의

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빛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빛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평주의의 종류                      ② 공평주의의 적용 방식
- ③ 도덕적 정당성의 의미              ④ 공평주의의 개념과 의의
- ⑤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

**4. ㉠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 ① 철수가 형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 ②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철수가 놓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철수가 공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철수가 형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순이’가 ㉡이라고 할 때, ‘순이’가 취할 행동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순이는 오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하루 동안 간병하기로 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외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이 처한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가까웠던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 ① 두 분 다 소중하므로 누구를 도와도 상관없다.
- ②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 ③ 친할머니께서 더 젊으시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④ 친할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⑤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으시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6.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택이 작용한 거야.
-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이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이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낙 자 중에서 앞의 석자만이 씩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낙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낙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듯,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을들 무엇이든, 현묘(玄妙)함이 있을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돌듯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

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 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훔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저거리에 나앉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헌(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 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려 대는 ㉩즈음 젊은이들 답지 않게 초헌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 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 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학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총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 소재 :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금시조 :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향상 : 상상의 큰 코끼리.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석담'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② ㉡: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고죽'을 '석담'이 나무라고 있다.
- ③ ㉢: 재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고 있다.
- ④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렸던 '석담'에 대한 '고죽'의 원망이 되살아나고 있다.
- ⑤ ㉣: '초현'이 훗날 대가로 성장하리라는 '고죽'의 예감이 담겨 있다.

9. ㉠~㉣ 중, <보기>를 근거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 보 기 >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 한국 독자들에게까지 소개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0.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이 갖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군.
- ②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예술가로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작가는 극적으로 그려 내었군.
- ④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작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군.
- ⑤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군.

<수고하셨습니다.㉡>